



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

보도 참고 자료

담당부서	교육연구팀	배포일	9월 5일 / (총5매)
팀장	유선경	전화	02-6210-0160
과장	신연선		02-6210-0053

『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』 발간

-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의 분석과 예방 시사점 제시 -

【 성형외과 의료분쟁 주요 사례 】

◆ 반복된 쌍꺼풀 수술 후 비대칭 및 기능이상 발생

- 본 사건은 세번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양안 비대칭과 눈의 기능 이상을 호소했으나, 의료기관이 환자의 피해를 일부만 인정, 손해배상 등에 있어 양당사자 간 이견차이 커, 의료기관이 조정신청한 사건임.
- 의료중재원은 1차 수술은 적절하였으나, 이후 수술은 환자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시행된 수술로, 일부 의료진의 과실 인정함. 또한 눈매성형술(상안검거근 중첩술 등)의 경우 재수술 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도, 재수술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하며 수술을 받을지의 여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,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.
- 이에 따라 1천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조정 결정함.

◆ 코 성형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 발생

- 본 사건은 코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, 휘어진 코를 바로 잡지 않아 비염이 발생, 추가로 비중격만곡증 수술을 받게 되었다며 환자측이 조정신청한 사건임.
-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주장하는 비염에 대해 비중격 만곡에 의한 호흡곤란 및 코막힘 현상일 뿐 비염이 아니라고 감정함. 다만 비중격 만곡은 수술 과정 중 비중격 연골 제거 시 수술 위치 선택이 부적절하여, 유착과 비중격 만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, 의료진 과실을 일부 인정함.
- 이에 따라 3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조정 결정함.

◆ 안면부에 자가지방이식술 받은 후 피부괴사 발생

- 본 사건은 안면부에 자가 지방이식술을 받은 환자가 피부괴사로 조정 신청한 사건임.
- 의료중재원은 지방이식술 시 동맥 폐쇄나 동맥내 지방색전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, 수술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,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살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의 증상이 악화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함.
- 이에 따라 환자에게 9백만원의 손해배상액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함.

◆ 필러 및 보톡스 시술 중 실명 발생

- 본 사건은 안면부에 필러 주입술, 턱 주위에 보톡스 시술을 받은 환자측이 우안 실명으로 조정신청한 사건임.
- 의료중재원은 필러 주사 시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안으로 주입되어야 할 필러의 일부가 미간부에 있는 외경 동맥과 내경 동맥을 이어주는 혈관내로 주입되어 색전증이 발생하고, 색전증에 의해 중심망막동맥이 폐쇄되어 우안 실명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함.
- 이에 따라 환자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함.

-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원장 박국수, 이하 “의료중재원”)은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의료사고에 관한 예방정보를 담은 『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』(이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) 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-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은 2015년 의약품 피해 의료분쟁 사례집에 이어 2번째로 발간된 예방적 관점의 사례집으로, 주요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와 해결과정 소개를 통한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
 - 이번 사례집을 통해 설립이후 4년간('12.4월~'15년) 성형외과 조정 신청 및 조정 개시된 사건의 현황과 의학적 판단, 법률적 검토의 근거를 알아볼 수 있다.

- 특히 성형외과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환자와 의료인이 각각 유의 해야할 사항을 넣어 환자에게는 지나친 기대나 충동적으로 수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기고, 의료인에게는 설명의무와 의무기록 및 동의서 작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□ 사례집에는 성형외과 사건의 주요 현황도 담겨있다.

- (상담 및 조정 신청현황) 최근 4년간 의료중재원 무료상담센터(☎ 1670-2545)를 통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2년 444건, 2014년 733건, 2014년 808건, 2015년 685건이며, 성형외과 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18건, 2013년 51건, 2014년 88건, 2015년 9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.

《연도별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현황》

('12.4월 ~'15년 접수 기준, 단위: 건, %)

구 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계
상담건수(전체)	8,826	11,308	12,045	9,650	41,829
상담건수(성형외과)	444 (5.0)	733 (6.5)	808 (6.7)	685 (7.1)	2,670 (6.4)
접수건수	18 (4.1)	51 (7.0)	88 (10.9)	91 (13.3)	248 (9.3)

※ 접수건수(전체): 2012년(503건), 2013년(1398건), 2014년(1895건), 2015년(1691건)

- (조정개시현황)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(248건)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총 112건(45.2%)이다.

《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》

('12.4월 ~'15년 접수 기준, 단위: 건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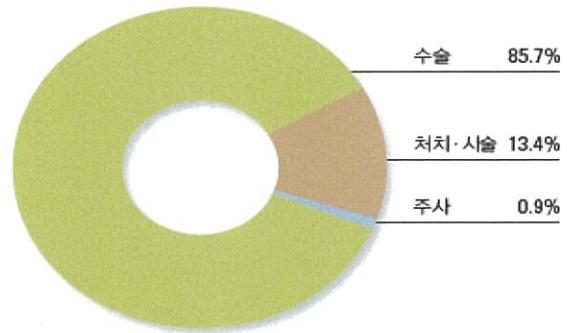
구 분	조정개시율	접수	조정개시	취하	각하
2012년	50.0	18	9	-	9
2013년	41.2	51	21	-	30
2014년	46.0	88	40	1	47
2015년	46.7	91	42	-	49
전체	45.2	248	112	1	135

- (조정개시사건 의료행위별 현황) 조정개시된 사건(112건)을 의료행위별로 분류하면, 수술이 96건(85.7%)으로 가장 많고, 시술·처치가 15건(13.4%), 주사 1건(0.9%)순이다.

■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의료행위별 현황

구 분	개시건수
수술	96 (85.7)
처치·시술	15 (13.4)
주사	1 (0.9)
계	112 (100)

('12. 4월 ~ '15년 개시 기준 단위: 건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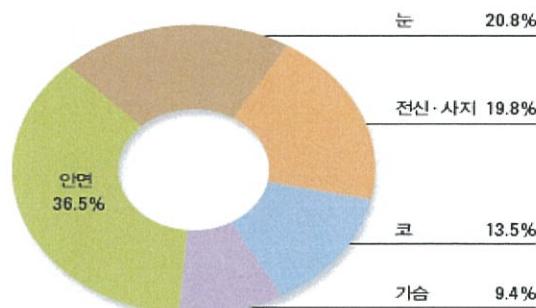


- (개시사건 수술 현황) 수술 96건을 신체 부위별로 나누면 안면 부위 성형수술이 35건(36.5%)으로 가장 많다.

■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수술의 신체부위별 현황

구 分	개시건수
안면	35 (36.5)
눈	20 (20.8)
전신·사지	19 (19.8)
코	13 (13.5)
가슴	9 (9.4)
계	96 (100)

* 주요 장점 사건 기준 ('12. 4월 ~ '15년 개시 기준, 단위: 건 %)



■ 성형외과 조정 개시사건 중 수술의 신체부위별 시술법별 현황

신체부위	상세	건수	신체부위	상세	건수
안면	안면거상술	8	눈	하안검	9
	광대 성형술	7		쌍꺼풀	8
	턱 수술	7		눈매성형	3
	지방이식술	5		재건술	14
	재건술	4	전신·사지	지방흡입술	3
	안면윤곽술	3		액취증 수술	2
	모발이식	2	코	웅비술	13
	기타	2		재건술	2
가슴	유방확대술	7	기타	유방축소술	2
	유방축소술	2			

* 중복 포함 (예: 코수술과 안면수술 동시 시행, 가슴성형과 안면성형 동시 시행 등)

('12. 4월 ~ '15년 개시 기준, 단위: 건)

-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“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이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하고, 환자와 의료인 간 상호 불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”며, “앞으로도 의료사고 예방방안을 연구·공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”고 밝혔다.
- 「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」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 위원회와 보건소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(www.k-medi.or.k ↗ 열린중재원 ↗ 자료실)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.

※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센터 1670-2545(국번없이)

<첨부>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사례집 책자 파일